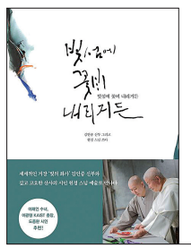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4~10/1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비스님의 천수경(개정판)	무비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6	어싱: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딱돌해설서:바르도에서 닦지않고 해탈하는 법(개정판)	중암선해 역저	금빛소리
3	입보살행론:지복에 이르는 보살의 길+낭송CD	샨티데바/석혜능	부다가야	8	미얀마아라한의 수행:9위빠사나 선사들의 법문 모음	강종미 편역	해장각
4	법정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 들	법정/편집부 엮음	문학의숲	9	생각 멈추고 사랑하기	종연스님	새벽별
5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10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책세상

시인 스님 · 화가 신부의 영성 '콜라보'



빛섬에 꽃비 내리거든
원경 스님 · 김인중 신부 지음
파람북/ 1만 8500원

'꽃비' 내리던 '빛섬' 갤러리서 첫 만남
서로의 예술세계에 대해 깊은 공감대
갈등의 시대, 화합 · 통섭 메시지 전해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화가 김인중 신부의 작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시인 원경 스님과 김인중 신부.

북한산 형제봉 아래 '심곡암'이라는 산사가 있다. 말 그대로 가파르고 깊은 계곡에 자리한 소담스러운 암자이다. 이곳의 주지가 원경 스님이다.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무료급식소(사회복지원각)를 운영하고 조계종의 중책을 맡아 늘 분주한 스님은 차향 은은히 퍼지는 고요한 암자에서 시(詩)를 쓰며 수행하는 시인이기도 하다.

유럽에선 이미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올랐으나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화가인 프랑스 도미니코수도회 소속 김인중 신부. 프랑스 혁명 이후 최초로 노트르담 대성당 전시(2003), 프랑스 문화예술 공훈 훈장 오피시에 수상(2010),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가톨릭 아카데미 회원 추대(2016), 프랑스 앙베르 시 '김인중 미술관', 이수아르 시 '김인중 상설전시관' 건립(2019) 등 김인중 신부의 이력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화려하다. 그러나 하얀 수도복을 입고 적막 속에서 기도와 그림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도자이다.

원경 스님과 김인중 신부가 만났다. 첫 만남은 청양의 '빛섬' 아트갤러리에서였고 축복과도 같은 '꽃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이미 서로의 작품에 대해 깊이 교감하고 있던 던 그들은 만남과 동시에 예술 수행자로서의 존경과 우애를 싹 틔었다. 종교와 세대, 문화의 차이는 어떤 장벽도 되지 않았다. 시인 스님과 화가 신부의 예술로서의 수행의 여정과 만남의 결과물 〈빛섬에 꽃비 내리거든〉은 그렇게 시작됐다.

화중시 시중화(畵中詩 詩中畵). 일찍이 동서고금의 많은 선인이 '그림 속에 시가 있고 시 속에 그림이 있는' 시와 그림의 일체를 찬양했다. 문학과 미술이 이질적인 장르가 아니며, 함께 어우러질 때 아름다움의 크기가 더욱 증폭된다. 〈빛섬에 꽃비 내리거든〉은 그런 미학을 현대적 감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한국이 나은 세계적인 화가인 김인중 신부와 승려 시인 원경 스님이 종교 간의 화합과 사상적 융합으로 반목과 갈등으로 점철된 이 시대 속에서 자애의 덕목을 구현하는 의미 있는 작품으로 탄생한 것이다.

김인중 신부는 '꽃의 시인' 원경 스님의 시 세계에 깊이 공감했고 원경 스님은 '빛의 화가' 김인중 신부의 구도자적 삶에 존경과 섬김으로 그림 곁에서 마음의 시를 썼다. 김인중 신부의 작품을 실물로 접한 원경 스님은 "상승하는 불꽃처럼 일렁이고 산곡에 내려앉은 새벽안개처럼 고요히 스미는가 하면 풀꽃을 건드는 나비의 날갯짓처럼 오묘하고 섬세한 선율을 보여준다. 때론 장엄하고, 때론 숭고하며, 때론 온화하다. 언뜻 조지훈의 시 「승무僧舞」의 시구처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양' 뭇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진다"고 했다.

차(茶)와 도(道)가 둘이 아니듯, 그림과 시도 둘이 아니다. 원경 스님의 시편들은 대부분 김인중 신부의 작품을 대하고 떠오르는 이미지와 영감을 포착해 쓰인 것들이다. 팔순이 넘도록 고독과 고난의 수행을 이어온 수행자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도 한다.

이 책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히 알려진 이해인 수녀의 찬사가 담겨있다. 김인중 신부와의 자매적 우정이 담겨있는 글이 곱기만 하다. 도종환 시인의 원경 스님을 향한 찬사도 아름답다.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은 추천의 글을 통해 "매우 희귀하며 아름다운 책이다. 종교, 예술, 출판의 영역을 떠나 우리 시대의 큰 자산이라 할 만하다"라고 평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신록이 담긴 화폭 속에서/ 기도하는 소망의 꿈이 푸르러/ 삶의 의욕과 열정을 안겨주기에//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라

–「푸른 꿈」 부분

초하의 녹음향에 취하여/ 잠 못 드는 한 밤의 심연 속에서는/ 꽃보다 꽃 그림자가/ 달빛보다는 달빛 그림자가 아름답습니다/ 님께서/ 어둠을 안고 빛그림에 취하여 춤을 추는 것도/ 그렇듯 아름답습니다

–「취하여 사는 삶」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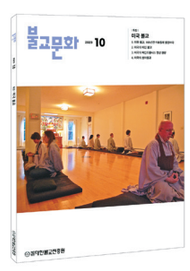
속진을 떨친 그물에 걸림 없는 바람처럼/ 그 숨결은/ 빛을 나르는 바람이 되시기를// 가닿지 못할 곳 없는 새의 날개처럼/ 그 빛깃이/ 가없는 자유의 나래 펼치시기

–「님을 위한 기도」 부분

불교 잡지 톺아보기

미국 불교, 21세기 불교를 보여주다

월간 〈불교문화〉 10월호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가 발행하는 대중 불교 문화지 〈불교문화〉 10월호(통권 제278호)는 '미국 불교'를 특집으로 다뤘다.

박진영 아메리칸대 철학 · 종교학과 교수는 '미국 불교, 100년간 자유롭게 발전하다'를 주제로 미국 사회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에 대항하여 불교적 참선과 불교 수행을 정신적인 밑거름으로 삼는 불자들이 늘고 있음을 진단하며, 윤성하 세인트올라프대 아시아 · 종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이민 불교'에서 한국 이민자들이 불교의 신앙과 수행에 의지해 이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개척해가는 그 모습 자체들을 소개했다.

이종복 스톡턴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미국의 마인드풀니스 명상 현황'을 통해 마인드풀니스 명상의 역사와 전망을 살피고 명상의 자본화 및 산업화에 따른 부정적 인식 등을 다뤘다. 박정은 서스캐처원대 세인트토마스모어 컬리지 종교문화학 강사는 '미국의 참여불교; 삶 속에 뛰어들지 않는 불교는 진정한 불교가 아니다'를 주제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붓다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실천에 옮기는 종교를 참여불교라 하며, 현재 불교가 미국에서 기후변화 등의 위기에 맞서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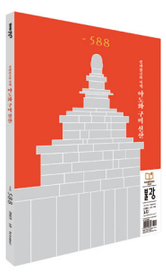
2023년 하반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 캠페인은 유정 방송작가가 '탄소 시계 늦추는 나만의 환경 실천법'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각전 스님의 부처님 성지 순례, 불상이 시작된 인도 마투라' △'화령 정사의 불교란 무엇인가, 현실 세계를 떠난 열반은 없다' △'10분으로 배우는 불교, 삼학' 등 풍성한 읽을거리를 담았다.

신중일 기자

신라불교 시작, 아도와 구미 선산

월간 〈불광〉 10월호



불광출판사가 발행하는 월간지 〈불광〉 10월호(통권 588호)는 '신라불교의 시작, 아도와 구미선산'을 특집으로 다뤘다.

〈불광〉 10월호에는 △신라불교의 승부사, 아도화상 △구미 선산과 모례네 이야기 △선산의 탑, 통일신라를 말하다 △구미 선산의 부처님 △구미 금오산의 불교 △금오산에 서린 야은 길재의 꿈 등을 통해 구미 선산의 불교 유적과 문화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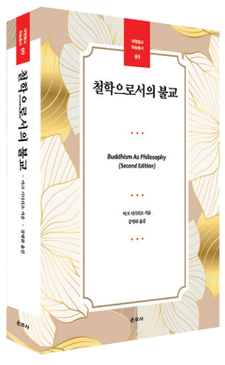
신라에 불교를 전래한 '아도'의 이름은 〈삼국유사〉에만 적어도 세 군데 이상 나온다. 그리고 비단 선산 도리사만이 아니라, 강화도 전등사(서해), 고흥 능가사(남해), 고성 건봉사(동해) 삼면 바닷가 사찰에도 전래 설화로 등장한다. 그렇기에 '아도'가 고유 명사가 아닌 당시의 승려를 일컫는 보통 명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 적이 있다. 전래 시기도 제각각이다.

삼국통일 직후, 신라는 현재의 구미 선산 지역인 일선군에 경주에 버금가는 탑과 사찰을 세웠고, 선산 도리사에서 출토된 금동사리함과 사리를 모셨다. 단순히 기록이 아닌 역사로서 '아도'를 추념한 것이다.

선산 지역은 전통적으로 영남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곳이다. 대조적으로 구미 지역은 현대 산업화의 대명사가 된 도시다. 태조산 자락에 위치한 도리사와 모례마을에서 신라불교를 볼 수 있다면, 금오산 자락에서는 산속 깊은 바위에 새겨진 부처님과 야은 길재, 대각국사 의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신중일 기자

불교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대원불교학술총서



철학으로서의 불교

미국과 캐나다 등 서구 대학의 철학과 교재! 불교의 철학 전통과 불교사상의 기본 교리를 흥미롭고 분석적으로 소개하였다.

마크 시더리츠 지음, 강병화 옮김 / 648쪽 / 38,0000원



스토아철학과 서양불교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와 고대 그리스로마 철학인 스토아철학이 보여주는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과 상호 영감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패트릭 어셔 지음, 이재석 옮김 / 152쪽 / 12,000원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

뇌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문일수 지음 / 360쪽 / 25,000원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권으로 보여주는 한국불교의 역사!
한국불교통사
김경집 지음 / 392쪽 / 20,000원



서양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에리히 프롬과 불교
박찬국 지음 / 316쪽 / 20,000원



인류의 위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새로운 실천 방향 제시!
활생문명으로 가는 길
김규칠 지음 / 368쪽 / 25,000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마음(心)과 의식(識)에 대한 통찰!
불교의 무의식
윌리엄 왈드론 지음, 안성두 옮김 / 456쪽 / 23,000원



백운 · 태고 · 나옹의 선어록에 대한 문예 미학적 접급!
한국 선어록의 문예 미학
전재강 지음 / 312쪽 / 20,000원



가장 뛰어난 제자 24인의 삶과 수행, 깨달음의 과정을 담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냐나뽀니까 장로 외 지음, 김충현 옮김 / 728쪽 / 40,000원



비구니 승가에 대한 차별이 과연 부처님의 본뜻이었을까?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
아날라요 지음, 김철 옮김 / 360쪽 / 20,000원



직접성과 즉각성의 전통적 해석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관점!
새로 보는 선불교
베르나르 포르 지음, 정천구 옮김 / 696쪽 / 4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